

# ‘스타트업’ 남주혁 X 배수지, 눈물의 이별

김선호, 김해숙의 실명 위기 알고 ‘오열’ 이별 맞이한 두 청춘의 성장·재회 ‘기대’ 시청률 수도권 평균 5.7%·최고 6.1% 기록



‘스타트업’에서 남주혁과 배수지가 눈물의 이별을 했다. 김해숙의 실명 위기를 안 김선호는 오열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주말극 ‘스타트업’은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 수도권 평균 5.7%, 최고 6.1%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적 기업 투스토에 인수된 삼산텍에서 CEO 서달미(배수지 분), 디자이너 정사하(스테파니 리 분)가 하고당하고 개발자인 남도산(남주혁 분), 이철산(유수빈 분), 김용산(김도완 분)만이 샌프란시스코 본사로 떠나면서 씩씩한 이별을 맞이했다. 먼저 삼산텍 멤버들은 개발자 세 명만 데려간다는 통보와 시각장애인용 어플 ‘눈길’ 유지 조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남도산은 계약을 맺었다며 반발했지만 60억원이던 위약금이 걸려있고

이들의 멘토인 한지평(김선호 분)은 더 이상 옹호하면 위험해질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냉정한 충고를 받은 그는 남도산의 만류에도 이번 인수가 이뤄진 이유가 오직 기술 때문이었다는 아픈 사실까지 지적했다. 상처 입은 서달미를 본 남도산은 분노했고 두 남자는 거친 주먹다짐을 하다가 이른다. 하지만 이대로 ‘눈길’을 포기할 수 없던 남도산은 한지평에게 최원덕(김해숙 분)이 머지않아 실명할거란 사실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그동안 한지평이 ‘눈길’에 내뿜었던 독설은 고스란히 돌아와 스스로를 찢었고 아직까지도 자신을 ‘순딩이’라 부르며 보듬어주는 최원덕을 보고는 슬픔으로 점철된 눈물을 터뜨렸다. 한지평의 절절한 후회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든 가운데서

3년 동안의 투스토 본사 근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고 서달미는 원인재(강한나 분)의 인제컴퍼니에 지원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 두 청춘이 과연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성장하게 될지, 이들의 재회가 기다려지고 있다. 이후 남도산은 이철산, 김용산과 함

# 아이즈원, 네 번째 미니앨범 ‘원릴러’

6개월만...내달 7일 컴백

그들 ‘아이즈원(IZ\*ONE)’이 6개월 만에 신곡으로 컴백한다. 아이즈원은 23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2월 7일 네 번째 미니앨범 ‘원릴러(One-reeler)’ 발매 소식을 알리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는 ‘원릴러’ 앨범명과 발매 시점이 담겼다. 상단에는 영사기 그림과 하단에는 아이즈원 멤버들의 이름이 나열돼 영화 포스터의 느낌을 풍긴다. ‘원릴러’는 아이즈원이 지난 6월 발매한 세 번째 미니앨범 ‘오나이리 다이어리(Oneiric Diary)’ 이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네 번째 미니앨범이다. 단편 영화를 뜻하는 ‘원릴러’처럼 아이즈원은 12명의 아름다운 청춘과 성장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총 세 가지의 ‘신(Scene)’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아이즈원의 네 번째 미니앨범 ‘원릴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아이즈원은 활동을 앞두고 최근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 순위 조작 관련 피해 연습생 명단 공개로 도



마 위에 올랐다. 아이즈원은 시즌3 ‘프로듀스 48’로 결성된 한일 프로젝트 그룹으로, 해당 시즌에서는 이가은·한초원이 피해 연습생으로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엠넷은 지난 19일 “프로듀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엠넷에 있다”며 “아이즈원은 12월 7일 새 앨범을 발매하고 같은달 6일 열리는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짜사나이2’ 한달만에 다시 공개

출연진 논란에 공개를 중단했던 리얼리티 예능 ‘가짜사나이 2’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서비스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차와 카카오투비는 ‘가짜사나이 2’ 5-8화를 차례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4화가 공개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카카오투비는 24일부터 매일 1편씩 선공개하고, 왓차는 그 다음날 서비스한다. 왓차는 28일 직접 제작한 스페셜 에피소드 ‘가짜사나이2: 더 메이킹’도 독점으로 공개한다. ‘가짜사나이’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가 글로벌 보안 전문회사 무사트와 함께 만든 리얼리티 예능으로, 방송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특수부대와 같은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 1기가 공개된 후 누적 조회 수는 5000만건을 돌파했다. 2기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김병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모델 겸 배우 줄리엔 강, 심어송라이터 샘 김, 개그맨 손민수 등이 출연해 더 화제가 됐다. 그러나 1기 출연자인 이근 예비역 대위를 시작으로 로건과 정은주 등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이 계속되며 지난달 중순 활동을 중단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피지컬갤러리를 운영하는 김계란은 지난달 16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저는 최근 논란에 대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재정비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혜수, 판사로 변신한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주연으로 배우 김혜수를 캐스팅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심판’은 소년법을 혐오하는 엘리트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휴먼 법정 드라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법령 이슈를 중심

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한 청소년 범죄와 이를 둘러싼 사회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넷플릭스 측은 “실제 소년법정 판사들의 자문을 통해 일반 민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법의 사후 처분과 적응을 들여다보는 소년법정 판사들의 일상과 고민을 생생하게 그려낼 것이다”고 말했다. 연출은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프’ 등을 만든 홍종찬 PD가, 각본은 김민석 작가가 맡는다. ‘스토브리그’에 참여한 길 퍼컷스와 ‘호텔 델루나’의 지티스 트가 공동 제작한다.

#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14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

**공개 후 약 2년 5개월 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4억뷰를 돌파했다. 23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3시32분께 유튜브 조회수 14억회를 넘어섰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공개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뚜두뚜두’ 뮤

직비디오는 지난해 11월 K팝 남녀 그룹을 통틀어 처음으로 10억뷰를 넘겼다. 이후 10억뷰에서 11억뷰까지 4개월, 11억뷰에서 12억뷰까지 3개월, 12억뷰에서 13억뷰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 ‘스퀘어 업(SQUARE UP)’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기를 끌며 그해 ‘전 세계에

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다. 또 이 노래는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쓰는 것은 물론 미국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각각 40위와 55위에 오르며 당시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스트리밍 3억회를 돌파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봄바야’까지 10억뷰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3편이

나 보유했다. 전체 역대부 영상은 총 22편에 이르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타 현재 5340만명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 중이 분야 2위다. 블랙핑크는 지난 10월 첫 정규앨범 ‘디 앨범(THE ALBUM)’을 공개했다.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픈업 앨범 차트에서 모두 2위에 올랐고 각 차트에서 6주, 7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입증했다.

# 임영웅, 유튜브 100만명 돌파 “골드버튼...이젠 다이아버튼 꿈”

**2016년 첫 커버영상 ‘당신이 좋아’ 재생하며 추억에 젖어**

가수 임영웅이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에게 수여되는 골드버튼 인증 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임영웅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 100만 구독 골드버튼 드디어 받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그의 유튜버는 지난달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임영웅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실버버튼 영상을 찍을 때가 정말 잊고 갈듯 했는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골드버튼이 도착했다”며 박수를 쳤다. 구독자 10만명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은 건 지난 3월이었다. 이어 “(실버버튼보다) 훨씬 큰 거 같다. 제법 목직하다”며 골드버튼을 개



봉했다. 그는 골드버튼을 들고 감격찬 표정으로 “첫 영상을 올릴 때가 정말 잊고 갈듯 했다”며 2016년에 처음으로 올렸던 ‘당신이 좋아’ 커버 영상을 재생해 추억에 젖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노래하고 영상 찍어서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다.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구독자 100만을 달성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눈앞에 골드버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골드버튼을 받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나랑은 다른 삶이구나’, ‘나한테는 없는 일이지 않나’ 했다”며 “실감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싱어송라이터’ 보아, 데뷔 20주년 앨범 ‘베타’ 내달 1일 발매

**자작곡 3곡·작사곡 1곡 수록**

가수 보아(BoA)가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베타(BETTER)’로 싱어송라이터 면모를 선보인다.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오는 12월 1일 발매되는 정규 10집 앨범 ‘베타’에 자작곡 3곡과 작사곡 1곡을 수록했다. 보아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세 곡은 ‘클라우드(Cloud)’, ‘올 댓 재즈(All That Jazz)’, ‘리틀 버드(Little Bird)’다. 또 직접 작사한 ‘엘.오.브이.이(L.O.V.E)’도 수록했다. 신곡 ‘클라우드’는 감성적인 일렉 피아노 사운드와 로우파이(Lo-fi) 신스 스트림이 어우러진 R&B 장르의 곡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따뜻한 감성을 선사한다. ‘올 댓 재즈’는 보사노바 기반의 퍼커션 리듬에 잔잔한 기타와 피아노 사운드가 더해진 재즈 팝 곡으로, 끝이 보이는 인연의 반자리가 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표현한 가사가 쓸쓸함을 보여준다. ‘리틀 버드’는 웅장한 브라스와 드

럼 사운드에 돋보이는 브릿팝 장르의 곡으로, 보아가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과 새로운 희망을 표현한 한 편의 영화 같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퓨처 디스코 장르의 ‘엘.오.브이.이’는 설렘을 저울질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뉴스스